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13차 세션, 바울서신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3, 바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입니다.

바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성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를 격려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는 구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선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울의 서신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주제와 사상을 요약할 때, 그것은 서신의 인사말과 마무리에서 우연히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절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냥 그의 어휘의 일부가 되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들어, 디모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때때로 기독교인의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독교인의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는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기본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많은 뉘앙스, 좋은 단어, 그는 연구하고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의 다른 많은 뉘앙스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토대 위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에 관해 가르치고 있으며, 이 구절들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주의 만찬의 유명한 제정에 비추어 볼 때보다 훨씬 더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핵심 구절이지만, 바울은 우리가 10장에서 그의 이전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16-22.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순서를 뒤집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빵과 잔 대신 먼저 잔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떤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많은데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무엇이고 우상이 무엇이라고 제가 암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니요, 이교도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귀신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강한 말입니다. 더 크고 좁은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특히 교회의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교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만류하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상 사원에서 처벌받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이 기독교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추론은 우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한 식사를 먹는 것은 무해하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실체가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우상의 추론 방식은 거부합니다. 반대로, 신자들은 우상이나 그들의 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왜? 인용하자면, 이교도들이 제사하는 것은 악마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구절의 핵심 단어인 악마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용문 닫기, 구절 20. 초자연적 영역, 즉 초자연적 악과 초자연적 선과 신과 함께 참여하는 개념은 바울이 구절 18에서 구약의 희생에 대해 언급한 것을 통해 강화됩니다.

그럼, 생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두 번 말한 후,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16절). 다시 말해서, 요소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교도 예배에 연루된 악마들과의 참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화, 이번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에 참여하는 것, 18절. 바울은 수사적 질문을 통해 구약의 가르침에 근거한 당시의 유대인 예배 관행을 지적합니다.

제사에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제사의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 즉 이스라엘의 신을 경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제단의 유익에 대한 믿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18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닌가? 따라서 바울은 직접적인 맥락에서 이교도의 종교적 식사에서 귀신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과 유대인의 제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강조점은 참여하는 것의 초자연적 효과에 있다. 16절에서 두 번

사용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참여와 나눔을 의미한다.

아주 훌륭한 번역은 친교일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만찬의 가장 깊은 의미, 다른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의 포용이 사실 그리스도와의 친교 또는 연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참여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십자가에서 한 번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의 혜택에 참여합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사적 질문이 있으며, 사용된 그리스어 부정 불변화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냅니다. 즉, 그것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삼파와 로스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사도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즐기고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얻으신 삶에 참여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들의 훌륭한 해설. 저는 해설을 잘 골라서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설입니다.

그들은 공평하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지나치게 교조적이지 않으며, 맵소사, 그들은 고린도전서의 크고 작은 맥락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잘 쓰여진 산문으로 말입니다. 이 해석은 21절에서 확인됩니다.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단지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교도의 제사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여자들은 귀신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만찬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삼파와 로스너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 인용문: 바울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또는 하나님의 소문자 *g*가 식사的主人이나 후원자 또는 후원자들로서 어디에서 기도하는지 강조하고자 한다.

교제는 식탁 주위에 모인 남성과 여성들뿐만 아니라 신과도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그의 희생의 혜택에 참여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립하거나 갱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님의 만찬이 자동적으로 구원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의식화된 복음이므로 교회는 결코 복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과 속죄와 복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십시오. 이 해석은 우리가 말했듯이 16절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됩니다. 로마서 6:1-11과 골로새서 2:11-12에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 기독교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하듯이, 로마서 6:1-11, 골로새서 2:11-12에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 기독교 세례의 가장 포괄적이고 포괄적이며 심오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저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 우리의 감정, 중요하고 성만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만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객관적 실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혜택을 우리에게 성만찬에서 가져다 주셔서 실제로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만찬에서 세례를 복음의 의식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할 때, 저는 말씀에 대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세례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모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동의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은혜가 제공됩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럽은 가득 차 있고, 프랑스는 구원받지 못한 유아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operato , 행위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진정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믿음이어야 하는데,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믿는 참여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누리고 그의 속죄 희생의 축복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0:16에서 만찬에서 그와 수직적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축복의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1세기 유대인 유월절 의식의 세 번째 잔, 구속의 잔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교제, 참여, 그리고 나눔입니다. 다음 구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의 수평적 교제에 대해 말합니다. 그와의 연합은 우리를 서로의 연합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은 앞의 장과 그들의 구분을 근거로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요소가 역전된 이유인데, 바울이 빵에서 잔으로 가는 대신 빵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주의 만찬을 지킨 방식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 대로 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빵, 혹은 빵 몇 개를 사용했고, 빵은 믿는 참여자에게 와서 그 사람이 한 조각을 떼어서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수평적 연합 또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에 대해 말하며, 이는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연합에 근거하는데, 이는 만찬의 주된 의미입니다. 빵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데,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 즉 공통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공통된 수평적 연합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16절에서 빵과 잔을 뒤집은 이유인데, 제가 말했듯이, 다음 구절에서 수직적 연합에서 수평적 연합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초기 연합을 의미하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의미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왜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연합이 필요한가요? 이는 마치 지속적인 은혜와 믿음이 왜 필요한가? 지속적인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 단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 설교와 말씀 읽기,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참여를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유대감을 강화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단어를 찾고 있는데, 내 옛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게다가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미지를 호소한다. 그는 거의 무심코 그렇게 한다.

그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독교 어휘의 일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빵은 하나이고, 우리는 한 몸이며, 우리는 많은데, 모두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회중의 많은 구성원들이 주님의 만찬에서 하나의 공통된 빵 한 덩어리에 참여함에 따라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교회가 됩니다. 만찬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합하는 것을 확립하고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21-23. 우리는 바울의 모든 본문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관해서는 몇 가지 훌륭한 것을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 인간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21-23.

물론 두 아담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는 자들에게 재앙이 될 결과를 숙고한 후, 고린도전서 15:12-19에서 저는 21살 때의 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신 두 가지 중 하나를 언급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할 수 있을까요? 그는 흑백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얻었을까요? 재앙입니다.

우리는 바보 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잃어버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20절에서, 그런데 저를 설득한 또 다른 것은 삼위일체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에 대해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21세의 나이에 저는 성경을 탐독했고, 특히 바울의 생각에서 그의 생각의 모든 곳을 보았습니다.

그의 생각 위에, 그의 생각 아래에, 중간에 삼위일체 교리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누가 이걸 만들어낼까요? 걸림돌입니다. 신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 능력을 넘어선다.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성한 기원이어야 한다. 이것은 신이 항상 그러했던 방식이어야 한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여긴 자로서, 어쨌든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인과 로마인으로서는, 그들은 그리스-로마 문화에 스며든 로마인으로서는, 죽음에서 육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진한 가정은 육신의 부활이었고, 그들은 이것을 철학자들에게서 얻었고,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언급했을 때, 그리스 철학자들은 마르스 언덕에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란 악취 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좀비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좀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 구역을 우리의 다 자란 아들들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어쨌든 썩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건가요? 아!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필멸의 몸과 썩을 수 있는 몸이 불멸하고 썩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불멸이고, 썩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영적이며, 죽은 자의 부활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며, 썩은 몸이 소생한다는 그들의 순진한 생각은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믿는 예수의 부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은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사람은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는 자기 차례대로,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

그 다음은 그의 임하심에 속한 자들이니, 바울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아담이 원죄를 통해 인류의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는 먼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때 그의 백성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인용하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23절)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사용한 것은 같은 구절에서 아담 안에서를 사용한 것과 대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역, 영역, 왕국을 나타내는 데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위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위치적 의미를 반영합니다. 아담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역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의 재림 때 살아날 것입니다. 삼파와 로스너는 이 구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정신을 포착합니다. 바울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형태의 구원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형적인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부활의 절정적 돌파구를 통해 종말론적 해결책을 찾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아담 안에서 대표자이자 지도자를 찾고, 아담과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 가져온 것에서 정체성과 운명을 찾는 집단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지혜롭고 간결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대표자이자 지도자를 찾는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운명을 찾고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 가져온 것을 찾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평행이론입니다. 오, 그들의 효과는 정반대이지만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 그들은 두 아담과 언약의 머리, 그들의 백성의 연방 머리입니다.

아담,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바울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표현은 기업 연대의 개념을 강화합니다.

다음 구절은 바울이 살아나심으로, 인용문으로,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속한 자들은 살아날 것이므로, 즉 그가 올 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의 주제와 아이디어, 그리고 체계 신학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곧 다가올 강의에서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구절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이는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한 많은 곳 중 하나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노동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그리스도인 노동, 봉사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굳건히 설 수 있고, 이 닻,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살아 있는 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의 일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노동에 대해 말하자면, 바렛, CK 바렛은 간결합니다. 인용문, 주님 안에서 행해졌으므로, 그가 멸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인용문 닫기.

고린도전서에 대한 Barrett의 유용한 해설. 믿으시든 말든, 저는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3-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돌리세.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심이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풍성히 참여하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에도 풍성히 참여하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을 참을성 있게 견뎌낼 때 경험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듯이 우리의 위로에도 참여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사도는 그를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3절. 이 말씀은 다음 가르침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자비롭고 위로하시는 아버지는 믿는 자들을 그들의 고통 속에서 위로하여 그들이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위로받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4절.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아들로써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애정을 그리스도론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풍성히 참여하듯이, 위로에도 풍성히 참여합니다. 5절.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독특한 것으로 남습니다. 중보자만이 속죄를 합니다.

우리는 속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위로의 조합은 제외되지는 않지만 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위로의 조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위로이지만, 여기서 그의 주요 추진력은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위로입니다. 미래의 위로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도움과 격려로 경험되는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영광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도움과 격려는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을 인내심 있게 견뎌낼 때 경험하는 위로입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는 이들이 지금 그의 고난과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만큼 우리의 위로도 함께 나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 에지컴비 휴즈는 고린도후서와 히브리서에 대한 주석을 썼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약간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그는 특이했고, 그는 그랬고,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신약 학자들에 따르면요. 사실, 그를 규율에 가두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는 신약과 성경의 해석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 그리고 또한, 그는 매우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논평에는 해석의 역사가 포함됩니다. 비판적 학문의 관점에서 진지한 해석은 계몽주의에서 시작되었고 이전의 것들은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휴즈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부, 중세인 , 그리고 개혁가 존 에드워즈 등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휴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웅변적으로 요약하지만, 바울이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빌립보서 3:10). 그것은 고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거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굴욕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지 않으시며, 그분은 이제 영광 안에서 높여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굴욕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중재하시는 분은 영광의 그리스도이시며,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강조점은 현재의 고난과 위로에 있지만, 이 구절은 미래의 위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9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7-22, 저는 이 구절을 이전에 언급했고 여기에 많은 내용을 넣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적인 자세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15, 내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두 번째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와서 유대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주저했습니까? 나는 육체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예, 예, 아니오,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여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의 적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보세요, 그는 자신의 여정을 바꾸고, 그것은 그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뿐입니다. 그는 듣는 사람의 귀를 간지럽힙니다.

그는 거짓 사도입니다. 글쎄요, 바울은 비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는 비판적인 비판을 좋아하나요? 아니요.

그게 그를 밤에 깨어있게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복음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우며 나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1:18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와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실라노와 디모데와

나,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셨지만, 그에게는 항상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에게서 예가 발견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하여 영광을 위하여 아멘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에 그의 영을 보증으로 주시고, 사역과 메시지에 있어서 원수들에게 주저함을 고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획대로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자, 바울은 둘 다 변호합니다. 그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바꾸었다고 설명합니다(23절).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항상 안정을 유지했고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메시지, 그의 계획은 바뀔 수 있고, 그의 여정은 바뀔 수 있지만, 메시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바위처럼 견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방법,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변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그는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와 복음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19-20절). 이 두 가지 in him 사용은 도구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를 성취하십니다.

안정성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가져오신 것은, 그분 안에서 또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아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20절). 19절,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아멘은 항상 예이며, 예와 아니오가 아니며, 주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그들의 예가 발견됩니다. 둘 다 그분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도구 또는 수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21-23절). 거룩한 삼위일체는 신자들을 안정시킨다.

아버지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안정시키신다. 바울은 네 번이나 성령에 대해 말한다.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봉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최종 상속 재산에 대한 증빙이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내주하심, 상관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21절에서 썼습니다. 여기 이 여섯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 번째 참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정의되거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확인된 신자들의 지위를 표현합니다." 콘스탄틴 캠벨의 뛰어난 작품, *바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고린도후서 5:16-21.

저는 그 안정적 영향력으로 충분히 했기를 바랍니다. 아마 조금 더 할 겁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 특히 복음은 안정적이라고 말한 후,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특히 아버지가 우리를 안정시킨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확립합니다. 여기에는 말장난이 있을 수 있는데, *Christos*는 기름부음받은 자를 의미하고, 그의 바로 다음 단어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확립하셨습니다.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 과 연합하여 사람들을 안정시키십니다 .

즉, 믿는 자들을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네 가지 방식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는 오순절에 교회에 단번에 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신자들은 회심할 때 영을 받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그의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울은 세 구절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 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오, 틀렸네요.

저기로 돌아가야겠어요, 미안해요. 여기서 계란을 조금 휘저어 놓았네요. 미안해요. 바울은 세 군데에서 성령의 인장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에베소서 1:13 , 14. 그 안에서 여러분은 약속된 성령으로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인봉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수동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또한 약속된 성령인 인봉으로 아버지에 의해 인봉되었습니다.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봉자이고, 성령은 인봉자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인봉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30입니다. 먼저 써야 했지만, 잘못된 인용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그로 인해, 그로 인해,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구원의 날을 위해 인봉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인봉의 주요 의미가 나옵니다.

그것은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으로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의 최종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인장 찍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표시하시고,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보호할 신격의 사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후서 1:19). 그리고 바울과 다른 모든 신자들도 사실 삼위일체 때문에 견고하고 안정적입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1:19) 행동하는 것, 특히 우리에게 영을 주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영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영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금, 보증, ... 오늘은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제 이름만큼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나요? 당연히 Arabone 이죠.

아람어 대출 단어, arabone . 선불금. 보증금.

마지막 구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유산이나 약속을 주실 때, 즉... 현대의 예를 들자면, 당신이 집에 둔 성실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대한 언급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주신 우리의 안정성을 보여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17-22. 고린도후서 5:16-21.

나는 늙지 않아. 그건 다 신화야, 내가 말해주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6-21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에 따라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한때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여기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창조물이니라.

옛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왔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를 위하여,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그를 죄로 만드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신자들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창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발견하는 새로운 영역을 특징짓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역, 그의 영역입니다. 그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왔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화해를 함께 언급합니다. 그는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18절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와 평행하게 언급하는 듯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8,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19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19절에서 도구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세상과 자신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바울도 그 안에서 칭의와 결합합니다. 21절에서, 그는 죄를 알지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언어의 모든 용법은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관계를 전달하지만, 대부분의 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콘스탄틴 캠벨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누어 의롭게 됩니다. 그는 21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의 강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믿는 이들이 그분 안에서 의가 되는 구절의 겉보기에 대칭적인 데서 나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따옴표 안에 있는 죄가 되셨으므로 죄 많은 자의 곤경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그분의 의로운 지위에 동참함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이 구절 자체의 내적 논리는 결국 결론적이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3,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입니다.